



numbers

vol. 325

소형교회 실태 조사(2) : 목회자편

소형교회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출산과 결혼 추이
- ② 근로자 특성별 평균 소득

2026. 3. 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소형교회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지난 호(324호)에서는 소형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실태와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장을 지키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담임목사 4명 중 3명(74%)이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41%)은 목회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고민 앞에서 있었다. 특히 월평균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74만 원에 불과해, 사모의 경제 활동과 주변의 도움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동력이다. 이들은 규모의 한계를 제자훈련과 소그룹이라는 '본질적 사역'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었다. 결국 소형교회 목회의 성패는 목회 비전의 공유와 사람을 세우는 본질적 사역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호가 단순히 소형교회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자의 소진된 마음을 보듬으며 '작지만 강한 교회'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교회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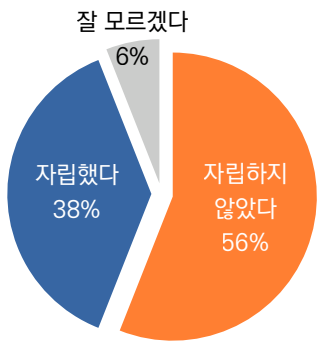
구 분	소형교회 성도조사	소형교회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출석하는 성도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시무하는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400명(유효표본)	총 300명(유효표본)
조사 기간	2025년 09월 19일~2025년 10월 13일	2025년 09월 22일~2025년 10월 3일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하나님나라복음DNA네트워크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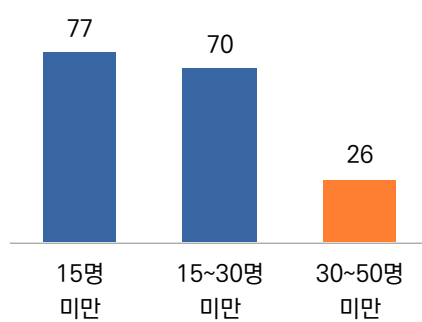
[소형교회 사역 환경] 소형교회 절반 이상(56%), 미자립 상태!

- 소형교회 담임목사에게 시무교회의 자립 여부를 물은 결과, '자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어섰다. '자립했다'는 응답은 38%에 그쳐, 소형교회 상당수가 여전히 외부 지원이나 자비량 없이는 교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출석 교인 수 15명 미만'은 77%가 미자립 상태, '15~30명 미만' 역시 70%로 높은 미자립률을 보였다.
- '30~50명 미만' 교회는 자립도가 26%로 급격히 낮아져, 교인 수 최소 30명이 소형교회 자립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시무교회 자립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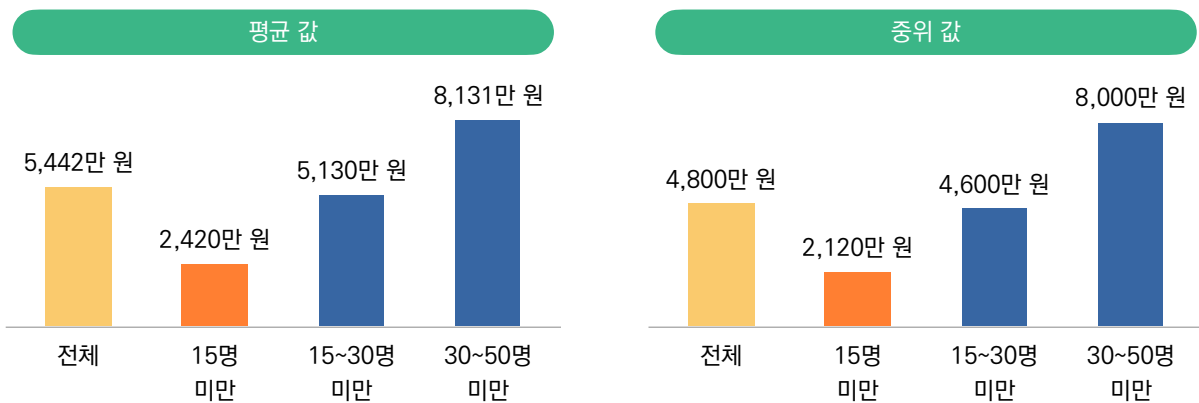
[그림] 미자립 비율 (출석 교인 수 별, %)



연평균 결산 5,442만 원, 중위값은 더 낮은 4,800만 원!

- 소형교회의 작년 한 해 총 결산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442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터의 중간인 '중위값'은 4,800만 원에 불과해, 평균치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규모는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일부 상위 결산 교회들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소형교회는 연 5,0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교회 운영과 임대료, 사례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양극화는 더욱 뚜렷했는데, '출석 교인 수 15명 미만' 교회의 경우 연평균 결산이 2,420만 원으로, '30~50명 미만' 교회 예산(8,131만 원)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작년 교회 총 결산 규모 (소형교회 담임목사, 교회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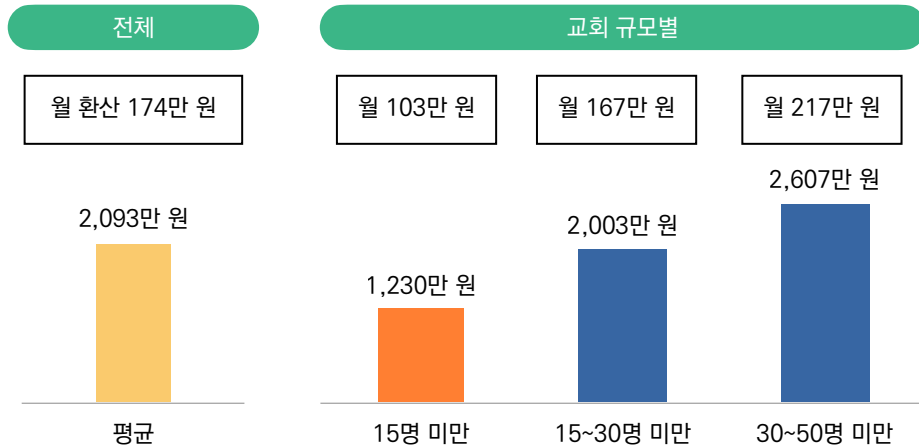


*중위 값 : 데이터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값

소형교회 목회자, 월평균 사례비 174만 원

-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소형교회 목회자의 지난 1년간 사례비 총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9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74만 원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 21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위협받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적 고충은 더욱 컸다. 출석 성도 15명 미만인 초소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가 월 100만 원 남짓(103만 원)에 불과해 외부의 지원이나 이종직 없이는 목회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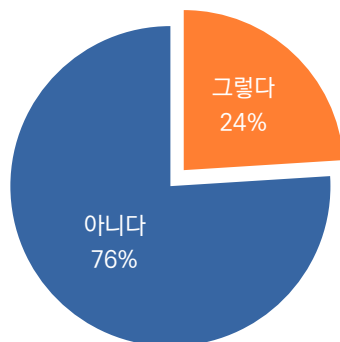
[그림] 지난 1년간 사례비 총액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는 소형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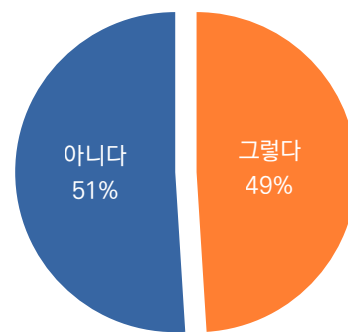
목회자 24%, 사모 49%는 현재 경제활동 하는 중!

- 소형교회 담임목사 중 현재 목회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종직 목회자'는 24%로 나타났다.
- 사모의 경우 경제활동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소형교회 사모의 절반인 4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 본인의 겸직 비율(24%)보다 2배 높은 수치로, 소형교회 유지와 목회자의 사역 지속을 위해 사모들이 가계 경제의 실질적인 책임을 분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현재 담임목사의 겸직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그림] 현재 사모님의 직업 생활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02

[목회적 위기감]

시무기간길수록·목회철학부재할수록교회생존불안감높아져

- 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존립(생존)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74%가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형교회 목회자 4명 중 3명은 사역 현장에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실존적인 위기감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 교회 존립에 대한 걱정은 목회 연차가 길어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무기간 '5년 미만' 목회자는 56%가 존립을 걱정했으나, '10~20년 미만'은 79%, '20년 이상'은 88%까지 치솟았다.
- 또한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없는 목회자(88%)는 있는 경우(73%)보다 존립에 대한 불안이 컸고, 직접 교회를 세운 개척 목회자(66%)보다 기존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84%)가 교회 존립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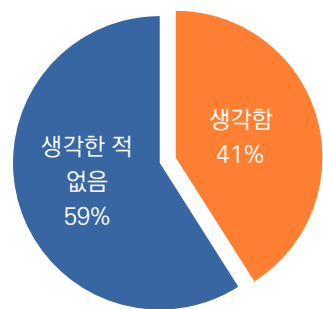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존립에 대해 걱정을 한 경험 (소형교회 담임목사)



목회자 41%, 목회 중단 고민한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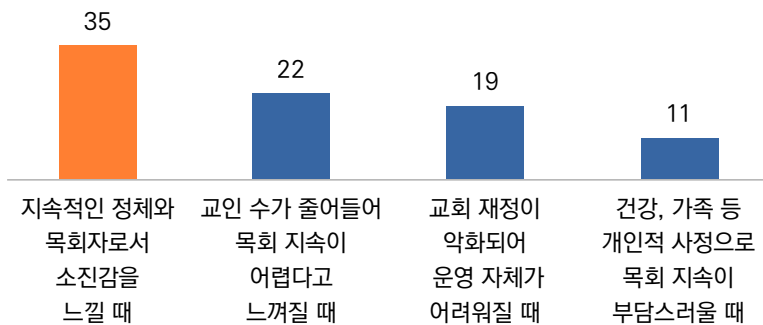
- 소형교회 담임목사에게 목회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41%가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소형교회 목회자 10명 중 4명이 단순한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목회 자체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 목회 중단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목회자의 '내적 에너지 고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정체와 목회자로서의 소진감(35%)'을 1위로 꼽았는데, 이는 '교회 재정 악화(1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그림] 목회 중단 고민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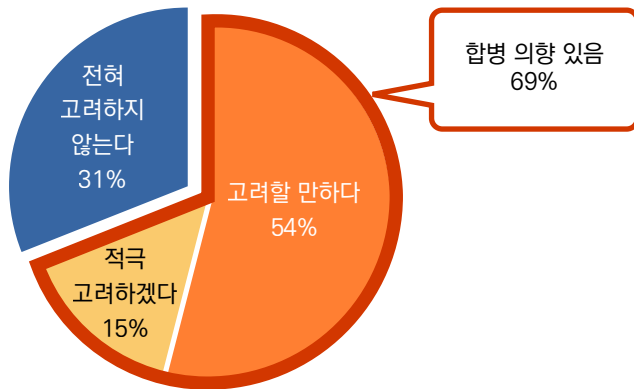
[그림] 목회 중단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목회 중단을 고려한 담임목사, 상위 4개, %)



목회자 10명 중 7명, 교회 합병 의향 있다

- 소형교회 담임목사에게 시무교회의 합병 의향을 묻은 결과, '적극 고려하겠다(15%)'와 '고려할 만하다(54%)'를 포함해 무려 69%가 합병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교회 목회자 10명 중 7명이 독자적인 생존 노력보다 타 교회와의 합병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 '적극 고려하겠다' 비율은 시무기간이 길수록, 시무교회가 대도시에 위치할 경우,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많은 소형교회 목회자가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재정적 부담을 분산하고, 인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고뇌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이제는 소형교회 목회자 가운데 교회 합병이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시무교회 합병 의향 (소형교회 담임목사)



[그림] 시무교회 합병 '적극 고려' 비율 (소형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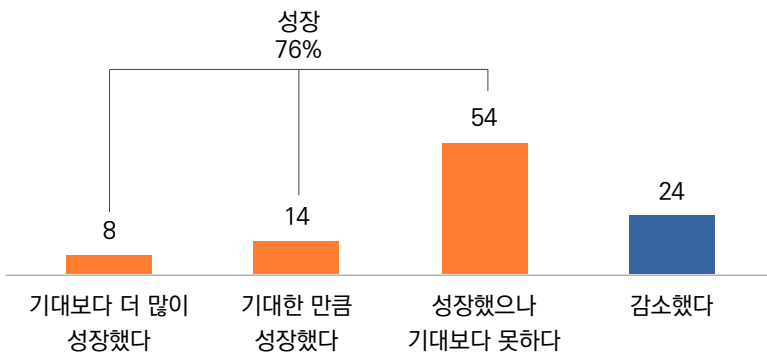
연령	49세 미만	12%
	50대	18%
	60세 이상	12%
시무교회 위치	대도시	19%
	중소도시	11%
	읍/면	3%
시무기간	5년 미만	6%
	5~10년 미만	9%
	10~20년 미만	19%
	20년 이상	20%

03

[양적 성장 평가] 소형교회 4곳 중 3곳(76%), 양적 성장 경험!

- 시무교회 교인 수의 양적 성장 여부를 묻은 결과, '기대보다 더 많이 성장' 8%, '기대만큼 성장' 14%, '기대보다 못 하나 성장함' 54%로, 소형교회 4곳 중 3곳(76%)은 양적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소했다'는 2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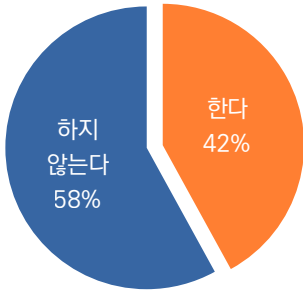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양적 성장 평가 (소형교회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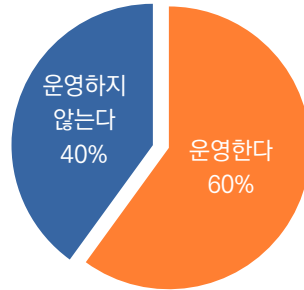
소형교회 중 '제자훈련 시행' 42%, '소그룹 운영' 60%!

- 소형교회의 사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교회는 42%,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는 60%로 나타났다.

[그림] 제자훈련 시행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그림] 소그룹 운영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소형교회의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 성장하는 교회와 감소하는 교회 사이에는 훈련 체계의 유무가 확연한 차이를 만들었다. 소형교회의 경우 교인 수가 늘어난(양적 성장) 교회일수록 소그룹/제자훈련 있음 비율(각각 87%, 82%)이 높았고, 반면 '감소하는 교회'는 소그룹/제자훈련을 갖추지 못한 비율(각각 32%, 34%)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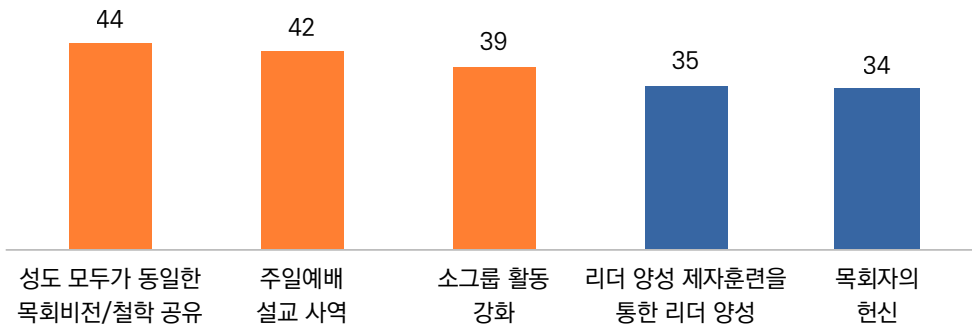
[표] 계층별 양적 성장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1+2순위, %)

		성장	감소
소그룹	있음	87%	13%
	없음	68%	32%
제자훈련	있음	82%	18%
	없음	66%	34%

소형교회 성패의 열쇠, '비전 공유/설교/소그룹'!

-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꼽은 목회 핵심 요소(1+2순위)는 '목회 비전/철학 공유(44%)', '주일예배 설교(42%)', '소그룹 활동 강화(3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지표는 모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소형교회 사역을 지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이는 지난 주 넘버즈에서 제시한 소형교회 성도의 교회 만족 이유, 비전, 선교, 교제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핵심 사역인 '설교'만큼이나 '성도와의 비전 공유'와 '소그룹 활동'이 비등한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 '철학의 공유'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돕는 '소그룹'이 목회 성패의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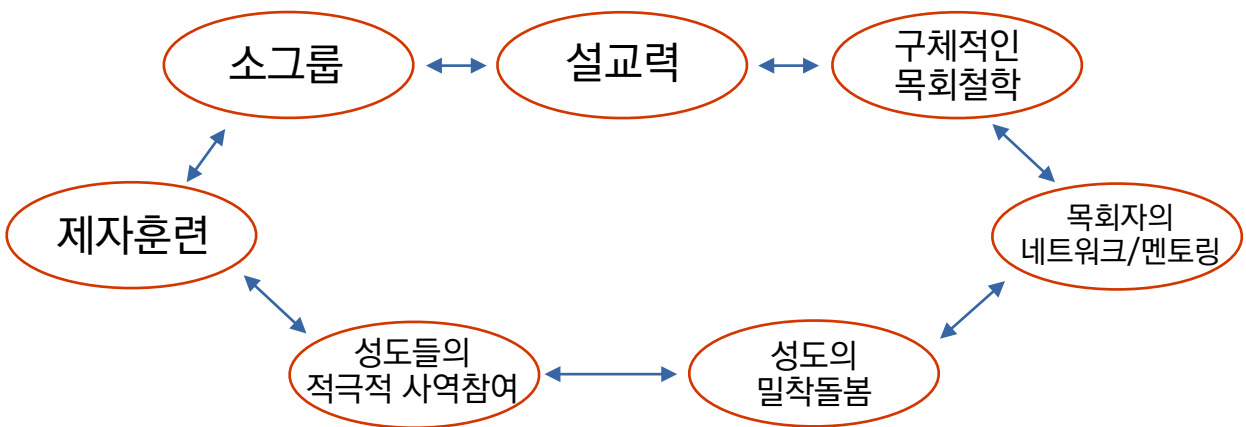
[그림] 소형교회 목회의 핵심 요소 (소형교회 담임목사, 1+2순위, %)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DNA 7가지!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핵심 특성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활성화'된 교회였고, 목회자는 '설교능력'과 '구체적인 목회 철학을 보유'한 경우, '목회자 간 네트워크/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와 '성도 간 세심한 돌봄'이 있는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7가지 핵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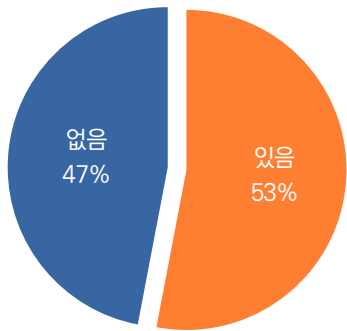
04

[목회자 개인의 삶과 만족도]

목회자모임있는소형교회목회자,제자훈련·소그룹운영비율높아

- 소형교회 목회자 중 정기적 목회자 모임이 있는 비율은 53%로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 특히 목회 만족도가 높은 경우(61%) 목회자 모임 참여율이 크게 높았고, 제자훈련(60%)과 소그룹(59%)을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이는 소형교회 목회자가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 목회자 모임이 있는 경우 제자훈련, 소그룹 등 그 교회 사역 활동화가 더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정기적 목회자 모임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표] 계층별 '정기적 목회자 모임 있다' 비율 (소형교회 목회자)

계층별	모임 있음	
	만족	불만족
목회 만족도	61%	27%
	양적 성장 여부	
	성장	54%
	감소	47%
제자훈련	있음	60%
	없음	47%
소그룹	있음	59%
	없음	44%

목회자 간 교류/나눔, 소형교회 목회자의 개인생활 만족도 높인다

- 목회자의 일상 생활 만족도에서 '개인생활 만족도'를 보면 교회의 양적 성장, 소그룹 운영 등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나, 가장 높은 만족도 요인은 '목회자 모임 여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 모임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개인생활 만족도가 63%였으나,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만족도는 43%에 불과해 20%p나 격차가 벌어졌다.
- 이는 목회자 네트워크나 멘토링이 목회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소형교회 목회자의 일상 생활 만족도 ('만족하다'(매우+약간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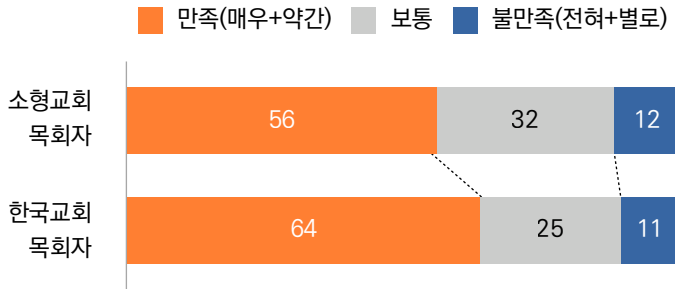
		부부관계	교회생활(사역)	영성 생활 (묵상, 기도 등)	전체적 개인 생활 만족도
전체		69%	60%	51%	54%
교인들의 양적 성장	성장	74%	67%	54%	58%
	감소	56%	40%	42%	39%
교인들의 질적성장	성장	77%	75%	60%	63%
	성장하지 않음	60%	42%	40%	42%
시무교회 제자훈련 여부	있음	77%	66%	54%	54%
	없음	64%	56%	49%	53%
목회자 모임 여부	있음	74%	69%	58%	63%
	없음	64%	51%	44%	43%
소그룹 운영 여부	있음	75%	64%	55%	58%
	없음	60%	55%	45%	48%

*5점 척도

소형교회 목회 만족도, 한국 교회 평균보다 낮아

-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목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매우+약간)'하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학목협)에서 발표한 전체 목회자 평균 만족도(64%)보다 8%p 낮은 수치다. 소형교회 목회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목회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12%), 중립적인(보통, 32%)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림] 목회 만족도 (%)



제자훈련·소그룹·정기적 목회자 모임 있는 경우 목회 만족도 높다!

- 인구통계적 특성별 목회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 비율은 '60세 이상 목회자', '읍/면 지역', '시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개척보다 '부임'한 경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이번에는 목회적 특성별 '만족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제자훈련/소그룹이 있고',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는 경우', '정기적 목회자 모임이 있는 경우'에 목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목회 만족도 (소형교회 목회자, '만족한다'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회적 특성			
계층별		만족한다 (매우+약간)	계층별		만족한다 (매우+약간)	
연령	49세 미만	63%	시무교회 제자훈련 여부	있음	64%	
	50대	54%		구체적인 목회 철학 여부	없음	50%
	60세 이상	46%	정기적 목회자 모임 여부		있음	59%
시무교회 위치	대도시	58%		없음	없음	32%
	중소도시	59%			소그룹 운영 여부	있음
	읍/면	49%		없음		없음
시무기간	5년 미만	75%				
	5~10년 미만	64%				
	10~20년 미만	50%				
	20년 이상	44%				
시무교회 개척 여부	개척	66%				
	부임	44%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소형교회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 성장하는 교회와 감소하는 교회 사이에는 훈련 체계의 유무가 확연한 차이를 만들었다. 소형교회 중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제자훈련 있음 비율(각각 87%, 82%)이 높았고, 반면 '감소하는 교회'는 소그룹/제자훈련을 갖추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DNA 7가지!

-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핵심 특성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활성화'된 교회였고, 목회자는 '설교능력'과 '구체적인 목회 철학을 보유'한 경우, '목회자 간 네트워크/멘토링 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와 '성도 간 세심한 돌봄'이 있는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양상을 보였다.

3. 목회자 간 교류/나눔, 소형교회 목회자의 개인생활 만족도 높인다!

- 목회자의 일상 생활 만족도에서 '개인생활 만족도'를 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 요인은 '목회자 모임 여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모임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개인생활 만족도가 63%였으나,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만족도는 43%에 불과해 20%p나 격차가 벌어졌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목회 멘토링 (김관성/최병락 저, 두란도)

관련 성경 구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소형교회 목회가 처한 현실과 동시에 그 안에 숨은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적지 않은 소형교회 목회자(41%)가 목회 중단을 고민할 만큼 정서적·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제자훈련과 소그룹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구조'를 분명히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규모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소형교회의 회복은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공동체 안에 훈련의 체계를 세우고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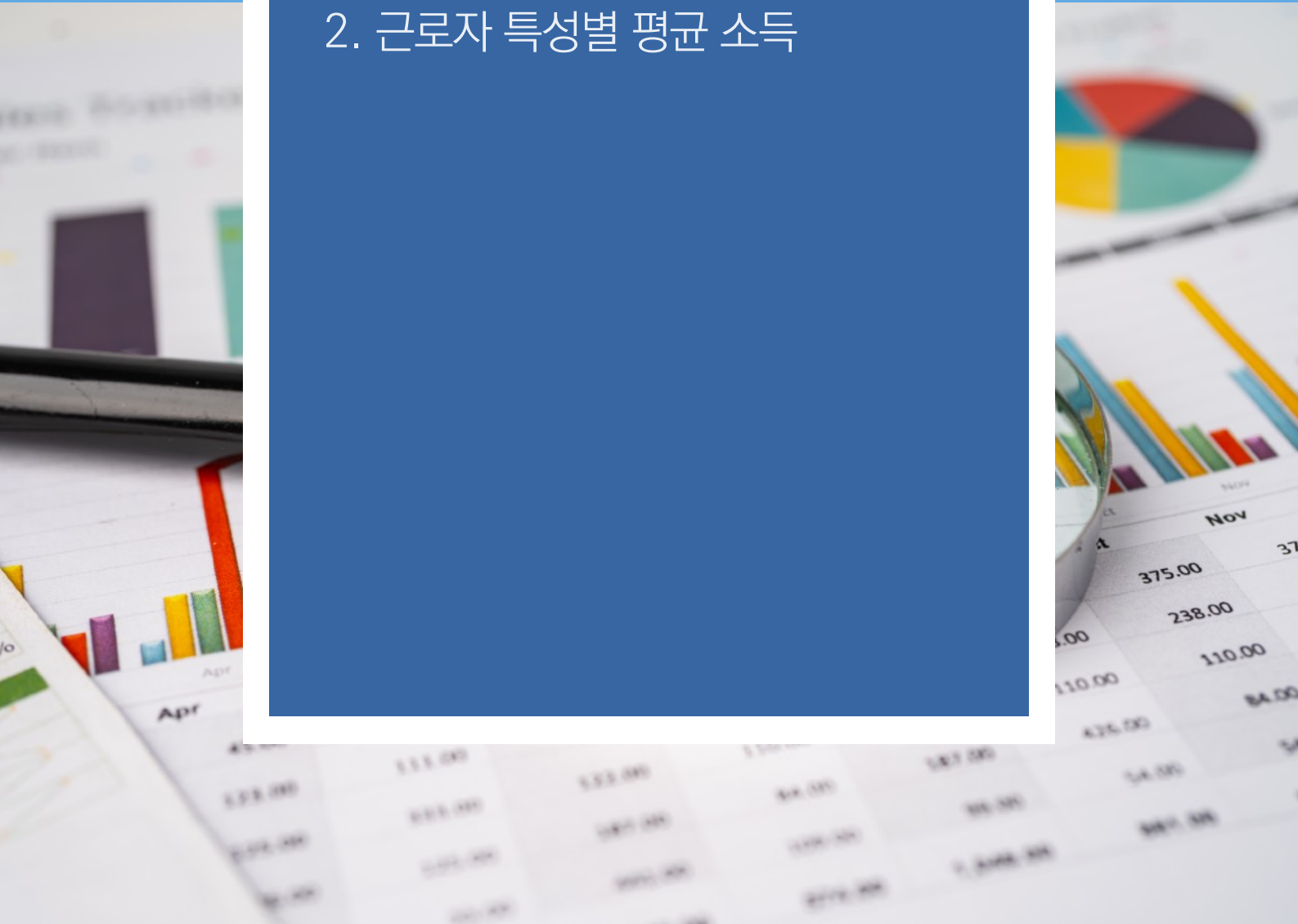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소진을 점검하고, 혼자가 아닌 동역 구조 안에서 사역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 간 네트워크와 멘토링은 정서적 지지와 영적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와 나눔은 사명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고,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설교와 비전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명히 제시하여, 성도들이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 사역 주체로 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소그룹 또는 1:1 제자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세우는 것은 소형교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강점이다.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형교회의 약점을 보완하고, 체계성과 지속성을 구축하는 길이다.

또한 설교는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 강력한 요인이다. 목회를 위한 투자에 있어 설교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출산과 결혼 차이
2. 근로자 특성별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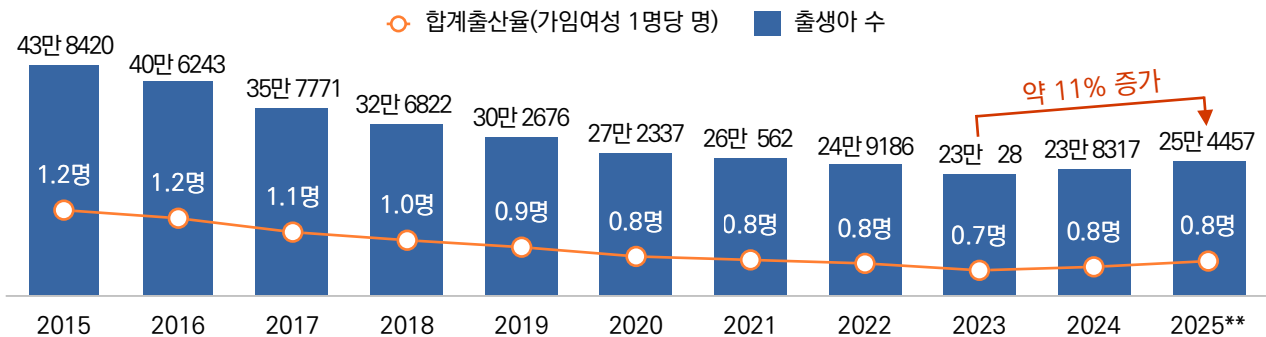




[출산과 결혼 추이] 한국 출생아 수, 지난 2년간 연속 증가

-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최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 보고서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었다.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출생 수치가 반등에 성공하며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43만 8420명 이후 2023년(23만 28명)까지 8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4년 23만 8317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으로 집계돼, 최근 2년 사이 출생아 수가 약 11% 증가하며 고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출산율 지표 역시 개선되어 3년 연속(2022~2024년) 0.7명대에 머물렀던 합계출산율이 2025년 들어 4년 만에 0.8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6.02.25. (2015~2019년 출생아 수/2015~2022년 합계출산율: 해당 연도 인구동향조사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3&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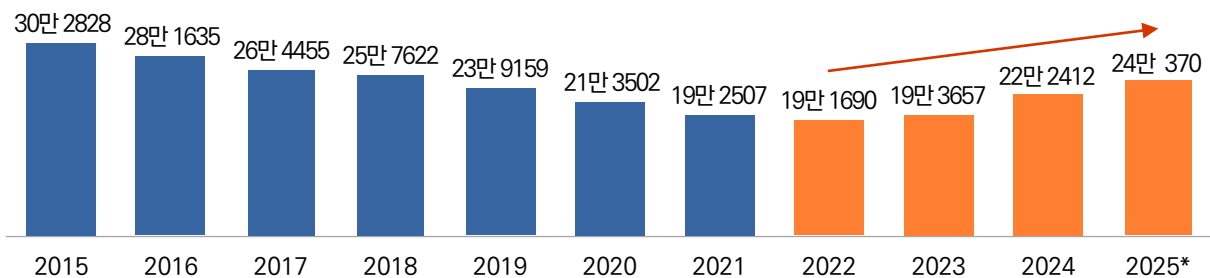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2025년은 잠정치

혼인 건수도 3년 연속 상승

- 혼인 건수는 2015년 이후 줄곧 하락하며 2022년(19만 1690건)에 저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반전된 흐름을 보였다.
- 2023년(19만 3,657건)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혼인 건수는 2025년 24만 370건까지 치솟으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림] 혼인 건수 추이 (건)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6.02.25. (2015~2019년 출생아 수/2015~2022년 합계출산율: 해당 연도 인구동향조사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3&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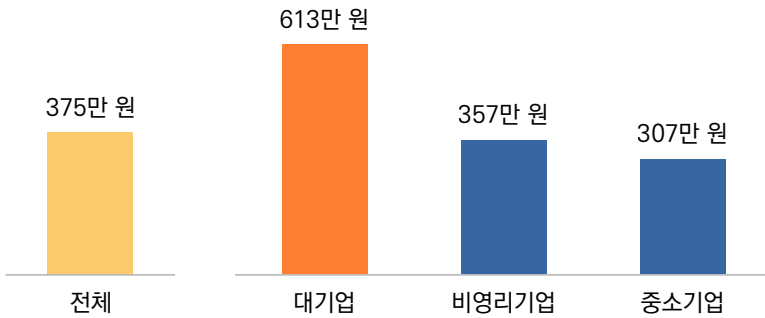
*2025년은 잠정치



[근로자 특성별 평균 소득] 대기업 평균 소득 613만 원, 중소기업의 2배!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계층별(성·연령·기업 규모·산업별) 평균 소득을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13만 원으로 비영리기업 357만 원, 중소기업 307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기업 규모별 근로자의 평균 소득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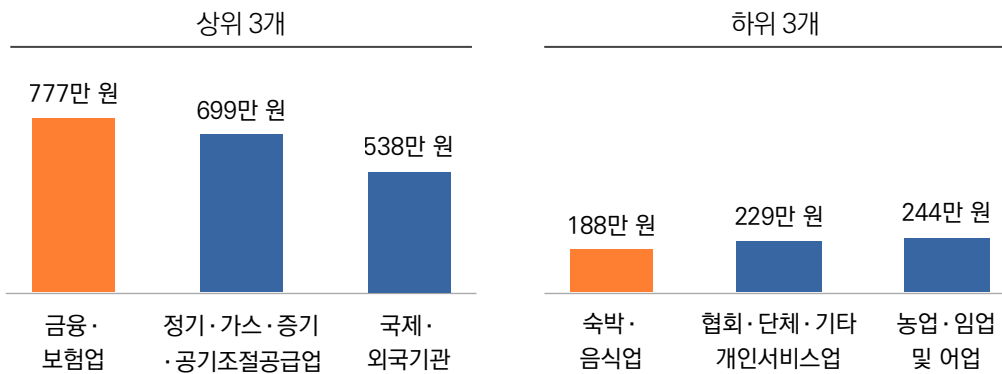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2026.02.23.

금융·보험업(777만 원) 소득 1위, 숙박·음식업(최하위 188만 원)의 4배 이상!

- 산업별 평균 소득은 금융·보험업이 77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가스공급업(699만 원), 국제·외국기관 (538만 원) 순으로 높았다.
-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업(188만 원)이었고,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9만 원), 농업·임업 및 어업(244만 원)도 하위권에 랭크됐다.

[그림] 산업별 근로자의 평균 소득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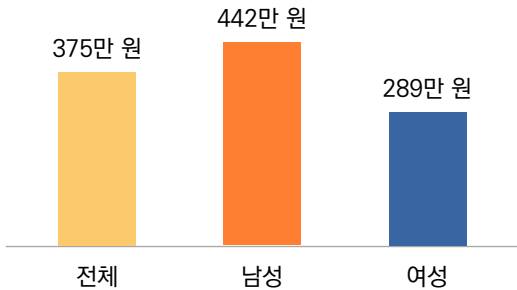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2026.02.23.

남성 442만 원 vs 여성 289만 원, 성별 소득 격차 1.5배!

- 성별 평균 소득은 남성(442만 원) 근로자가 여성(289만 원)의 1.5배였고, 여성은 전체 평균(375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별 평균 근로자의 소득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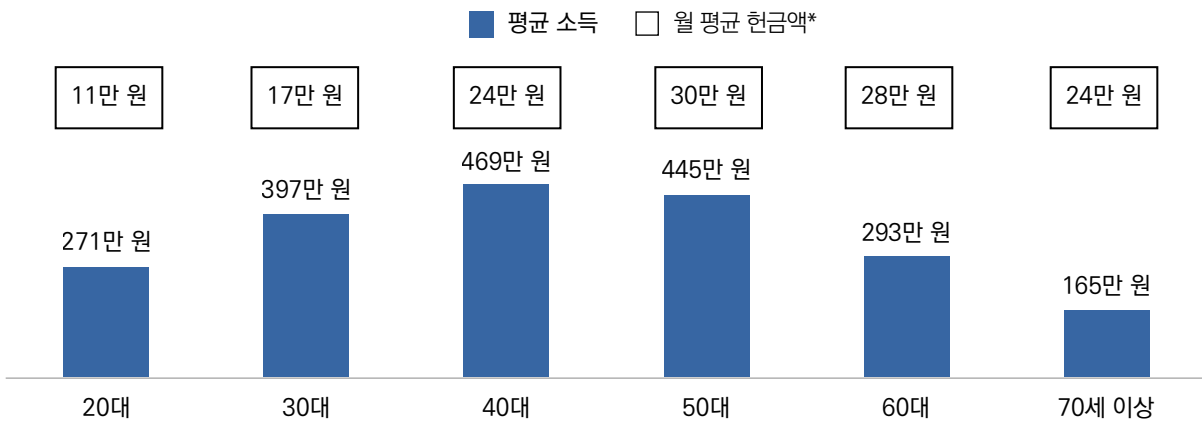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2026.02.23.

소득 1위는 40대, 교회 헌금 1위는 50대!

- 연령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69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50대(445만 원), 30대(397만 원), 60대(293만 원) 등의 순이었다.
- 다만 월 평균 연령별 헌금액은 평균 소득에 비례하지 않았다. 50대의 경우 소득은 2위였으나, 헌금액은 30만 원으로 전 연령층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2위인 40대는 월 평균 헌금액이 24만 원으로 60대(소득 4위, 28만 원) 보다 낮았다.

[그림] 연령별 근로자의 평균 소득과 한국교회 연령별 월 평균 헌금액 비교 (2024)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2026.02.23.

*한국교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헌금 조사), 2025.09.(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53호 \(2026년 2월 4주\)](#)

- 12.3 비상계엄 사태, 1심 법원 선고 형량, 경제 전망,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활약 선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5호 \(2026년 2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찬반

사회 일반

[15년만에 가장 큰 “응애”…늦깎이 엄마의 힘](#)

중앙일보_2026.2.26.

[외로움도 빈부격차?…월 100만원 미만 가구, 600만원의 1.7배](#)

조선일보_2026.3.2.

[소리 없는 절망, 신불자 100만 시대](#)

조선일보_2026.2.25.

[인구 줄어도 가구는 늘어…3곳 중 1곳은 '나홀로'](#)

연합뉴스_2026.2.28.

[한국의 '독립' 수준 물었더니…"문화 62.9점·외교 46.1점"](#)

연합뉴스_2026.3.1.

["온라인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연합뉴스_2026.2.27.

["귀농·귀촌 도전해볼까"…10가구 중 7가구 농촌 생활 '만족'](#)

머니투데이_2026.2.25.

[작년 무주택자 절반은 "집 사겠다"...아파트 선호 여전히](#)

조선일보_2026.2.26.

[폭력으로 번지는 가스라이팅…2030 남성 가해자 가장 많아](#)

한겨레_2026.2.25.

[2026 투자 전망 및 돈에 대한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2.24.

아동 · 청소년 · 청년

[2030청년 건강위협 사회적 요인…男 "과도한 경쟁"·女 "성차별"](#)

연합뉴스_2026.3.2.

["Si가 정답 주는 시대지만, 인생엔 정답 없으니까"…철학에 빠진 20·30](#)

중앙일보_2026.2.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삿!\] "반지하도 월세 60만원 넘어요"](#)

연합뉴스_2026.2.28.

[자퇴요? 내 길 찾은 거죠...교문 밖서 '인생 1막' 여는 청소년들](#)

연합뉴스_2026.3.2.

노인

[노인 외로움 완화에... 사회 활동보다 효과 큰 '이것'](#)

헬스조선_2026.3.1.

경제 · 기업

["평생 쓸돈 있어도 은퇴 안 해"...파이어족 꿈꾸던 직장인 인식 달라졌다](#)

아시아경제_2026.2.25.

[사무직보다 '킹산직'...MZ가 쫓은 진짜 이유는](#)

매일경제_2026.2.27.

["회사도, 정부도 못 믿겠다"... 직장인 절반 '성범죄 보호 불신'](#)

여성신문_2026.3.1.

국제 · 환경

[심상찮은 미국 여론... "미국의 이란 공격 찬성" 29%분](#)

KBS뉴스_2026.3.2.

기독교 · 종교

[더 떨어진 한국교회 신뢰도... 4명 중 3명이 '불신'](#)

국민일보_2026.2.27.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수유동교회 (담임목사 고승제)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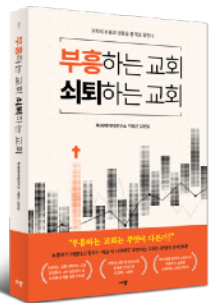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 (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